



## 동남아언어캠프 3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도전을 계획한다

김다혜, 김현경, 전제성(전북대 동남아연구소)

### 요약

전북대와 부산외대가 함께하는 동남아언어캠프는 2019년 여름에 시작되어 3년간 다섯 차례 개최되었다. 방학 중에 2주간 진행되는 언어캠프는 코로나19 대유행도 대면수업으로 돌파하였다. 다섯 동남아언어(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에 더하여 아랍어와 터키어도 가르쳤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32개 대학의 학부생, 대학원생, 학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활동가, 변호사, 기자 등 총 301명이 수강하였다. 캠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있고, 요즘 들어 상세한 소개 요청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이제 지난 3년을 정리하고 검토할 때가 된 것이다. 이 글은 캠프의 창설 배경, 과정, 추진 성과 및 과제에 관한 것으로, 캠프를 함께 만든 이들이 3주년을 자축하고 다음 3년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부** 산외대와 함께하는 전북대 동남아언어캠프(이하 언어캠프)가 2019년 여름방학 때 처음 개최되었고, 해마다 열려 이번 여름 여섯 번째 캠프를 앞두고 있다. 출범할 때는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여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이제는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더 자세한 소개를 요청하며 응원해 주시고 있다. 경험이 축적되고 기대도 커진 만큼 주최 측의 고민도 늘고 있다. 이제 지난 3년의 캠프를 돌아보고 새로운 3년의 도전을 계획할 때가 된 것이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언어캠프의 배경, 창설, 추진, 성과를 소개하여 빈번하게 접수되는 질문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답하고, 우리가 직면한 고민도 진솔하게 나누어 더 나은 캠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필진들은 창설부터 지금까지 함께 캠프를 위해 일해 온 이들이다. 캠프 창설 배경은 김현경이 처음 쓰고, 캠프 추진 및 성과는 김다혜가 처음 썼다. 전체성이 창설 과정과 과제에 대해 쓰면서 다른 부분도 전체적으로 손보았다. 그리고 셋이서 돌려 읽고 의견을 모아 다시 수정하고 완성하였다.

## ■ 캠프 창설 배경

### (1) 국내대학의 동남아언어교육 실태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관계는 정부 차원은 물론이고 민간 차원의 교류 또한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규모도 갈수록 증대하는 추세다. 그에 따라 양자를 매개할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일이 동남아학계의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여 학문적 필요와 현실의 수요 모두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 기반 중에 하나는 국내 대학의 동남아언어 교육 기반인데, 동남아 언어 관련 전공과목이 개설된 대학은 9개에 불과하다. 동남아 언어를 교양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학교를 더하더라도 총 11개 학교에서 동남아 언어를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표 1). 11개 대학 중 국공립대는 3개교(서울대, 부경대, 서울시립대)뿐이고 나머지는 사립대다.

동남아 언어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서울, 용인)에 4개, 부산에 3개, 충남·대전권에 3개, 경북에 1개 대학이며, 강원, 충북, 제주, 전남, 전북의 대학들은 어떠한 동남아언어 과목도 개설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어 2과목만 개설되어 있을 뿐인 경북의 경우도 동남아언어 고등교육의 소외지역에 포함시키는 게 더 적절할 것이다.

〈표 1〉 국내 대학의 동남아 언어 교육 과목 개설 현황

대학		개설 전공	강좌 수	소재지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동남아시아언어문명*	7	수도권 (서울, 용인)
		교양과정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2	
한국외국어대	서울캠퍼스	말레이·인도네시아어	19	
		베트남어	18	
		태국어	33	
		교양과정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2	
	글로벌캠퍼스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39	
		태국어통번역학과	36	
사이버한국외국어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40		
서울시립대	교양과정 (베트남어)	1		
부산외국어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어	19	
		미얀마어	15	
		베트남어	21	
		태국어	20	
영산대	글로벌학부 한·베트남통역전공	20	충남·대전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베트남어)	4		
	교양과정 (베트남어)	1		
단국대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20		
	교양과정 (베트남어)	2		
청운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 베트남비즈니스전공	21		
한남대	베트남지역학연계전공	5	경북	
영남대	교양과정 (베트남어)	2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2021. “2021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검색일: 2022.0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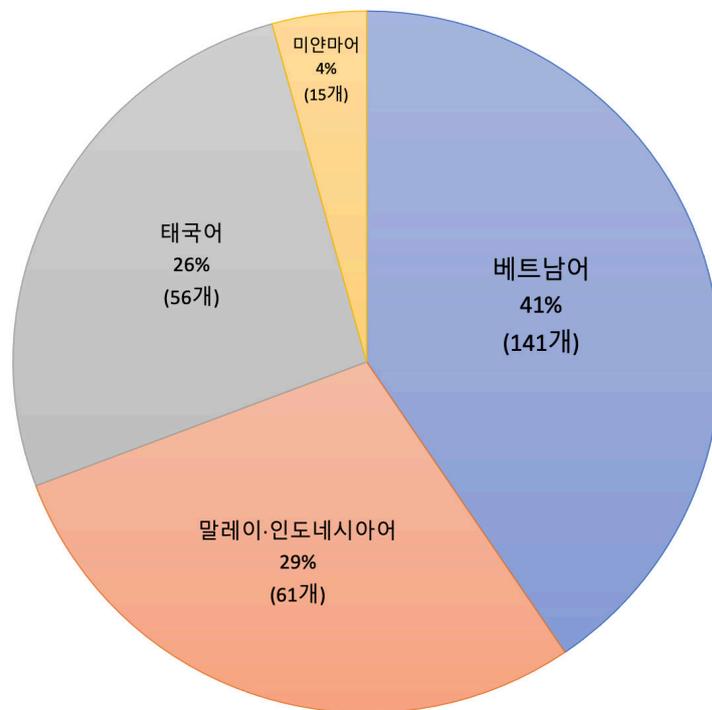
주요 대학 사이트 및 수강편람 참조(검색일: 2022.03.17.)

\* 말레이·인도네시아어 2개, 베트남어 2개, 태국어 3개 과목.

\*\* 베트남어 21개, 인도네시아어 19개 과목.

지역 편중 문제와 함께 언어 편중 문제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베트남어 과목이 대학의 동남아언어 과목의 약 41%를 차지한다(그림 1). 동남아지역학 관련 전공이 존재하는 9개의 대학 중 5개가 베트남어에 특화된 전공이고,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투자·인적 교류의 증대에 따른 수요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말레이인도네시아어와 태국어가 양분하고 있고, 미얀마어는 부산외대에 전공이 존재하여 희소하나마 과목이 개설되어 대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어(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크메르어), 라오스어 강의를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림 1〉 동남아 언어별 대학 교과목 분포



## (2) 특수외국어교육진흥을 위한 법 제정과 사업기관 선정

‘무역과 외교로 존립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다. 이른바 특수외국어진흥법을 제정하고 외국어교육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6년 2월,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을 통한 교육 기회 제공 및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같은 해 8월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특

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2017년부터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특수외국어”(critical foreign language)란 “국가 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의미한다. 정부는 “특수외국어의 범위”에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크메르어, 라오스어, 타갈로그어 등 8개의 동남아언어를 포함시켰다. 특수외국어 중에서도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통해 “중점언어”를 선정하게 되는데, 제1차5개년(2017-2021)사업에서는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태국어를 포함하는 15개 중점언어를 선정하여 우선 지원하였고, 2차5개년(2022-2026)사업시행계획에는 라오스어가 신규 중점언어로 추가되었다.<sup>1)</sup>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권역별 우수대학”을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권역 내 타 대학과 연계 및 협력을 통한 특수외국어교육을 총괄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부산외대), 단국대·청운대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동남아언어별 교육은 말레이인도네시아어와 태국어를 부산외대와 한국외대가, 베트남어는 부산외대와 청운대가, 미얀마어와 크메르어는 부산외대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부산외대가 동남아언어를 가장 많이 담당하는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 된 것이다.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대학들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생과 일반인까지 대상으로 포괄하여 언어교육을 시행하고 교육과정과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요청받았다. 비교과 프로그램이 주종이지만, 이렇게나마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을 통해 동남아언어 교육의 확산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실로 다행스러운 추세이다. 그렇지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대학들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들이 특수외국어교육에서도 여전히 소외되는 문제가 지속되었다. 부산외대 사업단도 교육 준비 중심의 첫 해를 보낸 뒤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학 외부의 아세안문화원과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시민강좌를 열며 적극적인 교육 확산을 시도하였으나 지리적 범위가 부산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1) 국립국제교육원. 2017. “제1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2017-2021] 기본계획”, 국립국제교육원. 2021. “제2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2022-2026] 기본계획”, 국립국제교육원. 2022. “2022년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시행계획(안).” 교육부. “중점언어” 지정을 위한 “정량분석” 항목은 “발전 잠재력, 한국과의 정치·경제 협력가능성, 학문적 수요, 타언어의 대체성”이고, “정성분석” 항목은 “권역별 중요 언어 우선순위”라고 한다.

### (3) 동남아언어 교육소외지대의 고군분투

대학의 동남아언어교육이 부재한 지역에 위치한 전북대에서는 자조적이고 비교과적인 교육이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정규 교과목도 언어 전문가도 없었던 전북대에서 동남아언어교육은 자원봉사로 시작되었다. 전제성이 전북대 정치외교학과에 부임한 다음해인 2007년부터 ‘서바이벌 바하사(인도네시아어)’라는 이름으로 방과후 무료강의를 시작하여 매학기 10여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다. 3년을 거듭하자 신기한 일이라 여겨 학보에 소개되기도 했다.<sup>2)</sup>

교육부 주관 ACE(학부교육선진화지원)사업의 융복합 교육분야에 전제성이 교내 동남아연구 인류학자(채수홍 교수), 중국연구 지리학자(이강원 교수), 일본연구 인류학자(임경택 교수), 이민연구 사회학자(설동훈 교수), 문화연구 인류학자(이정덕 교수), 민족주의연구 정치학자(박동천 교수)를 규합하여 동아시아·다문화융·복합연계전공<sup>3)</sup> 창설안을 제출하고 2012년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된 뒤로 인도네시아어 무료 강의에 더하여 베트남어 무료 강의를 추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강사료도 지원받고 가끔 수강생들과 식사도 함께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과 함께 지역연구 지망 대학원생들(김현경, 육수현)이 강사로 투입되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 인재양성을 목표로 정치외교학과, 국제학부, 경제학부 교수진이 함께 힘을 모아 교육부에 제출한 CK-1(창조한국 1단계) 국제화사업계획이 2014년에 선정되고 5년간 정부 지원을 받게 되자 동남아언어 강의는 더 넉넉한 지원을 받아서 방과후 무료 강의는 물론이고 현지에 언어연수까지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2018년까지 연인원 3백여 전북대 학생들이 인도네시아어와 베트남어를 초급이나마 무료로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배워서 인도네시아연구로 석사나 박사를 마친 학생들도 배출되었다. 유학생들은 자기 말을 배우려는 한국인 친구들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지원을 받던 ACE와 CK사업이 모두 2019년 2월 말로 만료되자 전북대에서 동남아언어교육이 다시 자원봉사형 교육으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2) 전북대신문. 2010. “슬라맛 빠기’ selamat pagi 인도네시아어 배워요.” 4월 14일.

3) 전북대학교 동아시아·다문화융·복합연계전공 홈페이지. <https://wz3.jbnu.ac.kr/sites/eams/index.do>

## ■ 캠프 창설 과정

### (1) 부산외대와 협의 및 합의

2019년 2월 18일, 전제성은 부산외대 앞의 증식당에서 김홍구 부산외대 교수(현 총장)와 만났다. 태국연구자 김홍구 교수와 인도네시아연구자 전제성은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의 마지막 감사로서 총회를 앞두고 업무 및 재무 감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었는데, 감사를 마치고 찾집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전제성은 부산외대의 특수외국어진흥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수의 동남아언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부산외대가 한국의 동남아지역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점하게 되었으나 그런 역량과 역할이 부산지역에 국한되고 있는 현실은 아쉽다는 소견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부산외대의 사업단이 고군분투 중인 전북대까지 동남아언어 교육 범위를 넓혀줄 가능성이 있을지를 문의하였다. 김홍구 교수는 부산외대 사업단도 바로 그런 확산 작업이 필요하다 느끼고 방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사업단장을 당장 만나 협의해 보자고 즉석에서 전화 걸어 약속을 잡아주었다.

만남을 주선한 김홍구 교수와 함께 전제성은 부산외대 특수외국어사업단 사무실에서 배양수 단장과 만났다. 베트남유학 한국인 1호박사로 알려진 베트남문학연구자 배양수 교수와 전제성은 2008년부터 2년간 한국동남아학회 연구이사를 함께했던 사이였다. 전북대와 협력하여 동남아언어교육의 불모지라해도 과언이 아닌 호남지역에서 부산외대 사업단이 강좌를 연다면 사업의 가치와 효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제성의 갑작스런 제안을 배양수 단장은 흔쾌하게 수락했다. 국내 동남아언어 교육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터라 피차간에 긴 배경 설명이 필요 없었으며 수 분만에 취지에 합의하고 곧바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다.

배양수 단장은 부산의 언어 강사들이 학기 중에 전주로 주말 출강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여러 방안이 가능함을 알려주었다. 전제성은 전북대에서 강의가 진행되지만 전국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면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방학 중에 학생들을 모아 교육하는 캠프형으로 추진하는 안을 제안했다. 배양수 단장은 2주간 언어별로 50시간씩 교육하는 캠프 방식이 가능하며 부산외대가 강사료와 교재비를 책임지고 전북대가 캠프 운영비와 강사들의 숙박 및 교통비를 부담한다면 여름방학 때부터 당장 추진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초급반부터 시작

하지만 중급반도 이어서 개설될 수 있고, 법률(특수외국어교육법)에 기초한 사업이기에 원한다면 캠프가 계속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로써 ‘단군 이래 최초’의 동남아언어캠프 창설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전제성은 대한민국에서 동남아언어교육을 위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부산외대 직원에게 사진촬영을 부탁했다(사진 1).



〈사진 1〉 부산외대 특수외국어사업단에서 전북대 동남아언어캠프 창설에 합의한 전제성, 김홍구, 배양수 교수(좌에서 우로)

## (2) 전북대 내부 협의와 지지

부산외대 회의를 마치고 돌아와 급히 비용을 계산해보았다. 수강생들이 체류비만 스스로 부담하는 무료 강의가 가능하려면 전북대가 지출해야 할 비용이 7백4십만 원으로 추산되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에게 합의 내용을 이메일로 보고하고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2월 21일에 추진해도 좋다는 총장의 이메일 답신이 있었다. 김동원 총장은 공대학장 시절에 발리의 우다야나국립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박사과정에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을 초청하였고 총장 취임 이후에 아시아연합대학(AUEA) 네트워크를 통하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명문대들과 전북대 학생들의 대규모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출범시킨 분이다.

전북대 총장의 지지로 캠프 출범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배양수 단장은 교류협정부터 체결하자 하여 2월 28일에 전제성은 동아시아·다문화융·복합연계전공 주임교수 자격으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sup>4)</sup> 이 때 배양수 단장이 부산외대가 담당하는 아랍어, 터키어, 힌디어(인도어) 초급 강의도 제공해 줄 수 있다 하여 캠프는 총 8개 언어가 교육되는 장으로 확대 기획된다.

그러나 급물살 타는 듯했던 캠프 창설은 전북대 내에서 곡절을 겪어야 했다. 총장의 지지가 있다 하더라도 학과나 전공이나 연구소는 이런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부 부서든 단과대학이든 사업을 책임지고 비용을 관리할 곳이 정해져야 했다. 총장은 기획처장과 상의하라 했으나 당시 기획처장은 언어교육원장과 상의하라 했고, 언어교육원장은 무료강좌이므로 사업 성격이 교육원과 맞지 않아 수용할 수 없어 죄송하다 했고, 다시 기획처장에게 이야기하니 분권화 취지에 따라 단과대학에 행정인력이 더 배치되는 추세이고 전제성이 정치외교학과 교수로서 사회과학대학 소속이니 사회과학대학에서 주관하도록 학장을 설득하라 했다. 그리고 비용은 당시 새로 출범하는 대학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서를 제출하여 수주하여 충당할 것을 조언하였다.

당시 사회과학대학장인 안국찬 행정학과 교수에게 대학혁신사업 신청계획서 작성부터 캠프 추진 운영 실무는 다 담당할 터이니 책임기관으로 사회과학대학을 걸어주고 계좌와 공문 유통 관리만 해주십사 부탁했다. 안국찬 학장은 이 사업이 사회과학대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교생을 위한 일이고 타교생들까지 대상으로 한다니 마땅히 대학 본부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본부와 추가협의를 거쳐 사회과학대학을 행정 담당 기관으로 정하도록 승인해주었다. 이로써 전북대 내부의 추진 합의도 이루어졌다.

캠프 출범 이후는 전북대 내부의 협력이 순항하여 안국찬 사회과학대학장뿐만 아니라 새로 선출된 윤명숙 학장의 지지가 이어졌고, 후임 기획처장들인 윤영상 화학공학과 교수와 정용채 전자공학과 교수도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사업의 성격이 대학간 네트워크 분야를 중점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국립대학육성사업에 새로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20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이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4) 국제신문. 2019. “부산외국어대, 전북대와 특수외국어 관련 학술교류 협정 체결.” 2월 28일.

### (3) 가치 ‘동남아언어캠프를 위한 한국대학연합’

전국의 대학 소속원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이니 추진 주체도 교내뿐만 아니라 초대학적으로 형성되어야 했다. 아는 분들 중에 관심 있을 만한 대학 교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캠프의 취지와 계획을 설명하고 홍보와 모집을 도와줄 의사가 있는 분들을 구했다. 16개 대학 20개 교육과정 소속 학자들이 지지와 참여 의사를 밝혀 주셨다. 모임의 이름을 미래를 염두에 두며 크게 짓고 싶었다. 전제성이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할 때 소개하기 위해 영문명도 임시로 필요했는데, 훗날 한아세안협력기금(AKCF)에 지원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이름을 지었다. 그 명칭이 바로 ‘동남아언어여름캠프(SEASK)를 위한 한국대학연합’(UNSEASK: University Network for Southeast Asian Studies Summer School in Korea)이었다. 여름캠프만이 아니라 겨울캠프도 이어지며 ‘여름’(Summer)이란 말은 나중에 지워졌다. 거창한 이름의 UNSEASK 창설 위원들의 이름과 소속은 다음과 같다.

오명석, 채수홍, 지은숙(서울대 인류학과), 여운경(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최경희(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강희정, 김종호(서강대 대학원 동남아시아학협동과정), 서보경(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형종(연세대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신재혁(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이충열(고려대 세종캠퍼스 경제학과), 손혁상(경희대 공공대학원), 김용균(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박은홍(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김지훈(인하대 사회교육과), 김형준(강원대 문화인류학과), 황인원(경상대 정치외교학과), 정연식, 서지원(창원대 국제관계학과), 정범모(부경대 국제지역학부), 홍석준(목포대 문화인류학과), 이종하(조선대 무역학과), 김재관(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김양현(전남대 철학과), 전대성(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캠프가 계속되면서 참여 교원들도 늘어났다. 추가로 오윤아(서울대 국제대학원), 이병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이선호(한남대 경제학과), 이숙연(국방대 안보정책학과), 이진영(전북대 국제인문사회학부), 백용훈(단국대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임상현(경희대 공동대학원) 교수 등이 가세하면서, 전북대와 부산외대를 포함하면 22개 대학의 28개 교육과정 및 3개 연구기관 소속 교원들도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발전한다. 참여 대학 교육과정의 소속원들에게 캠프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 선발되는 특별대우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캠프 신청자가 많은 언어의 경우 분반을 해서 모두 다 수용하곤 했기에 이런 특권을 누릴 기회는 아직 없었다.

#### (4) 설계, 모집, 그리고 대망의 출범

2019년 여름캠프는 첫 행사인지라 실무진의 고민이 많았고, 다양한 실험이 시도되고, 노동도 고강도로 투여되었다. 전북대 동남아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수주하기 이전인지라 비용도 아껴 써야 했다. 정치외교학과의 박현진 조교, 박사과정생 김다혜와 김현경, 석사과정생 전도인이 전제성 교수와 함께 전북대 여름캠프를 추진하는 실무를 담당했다(사진 2).



〈사진 2〉 2019 동남아언어여름캠프 추진 실무를 담당한 이들. ‘알라딘과 지니’에서 따와서 ‘전제성과 지니들’이라고 스스로를 비유하였다.

처음 있는 일이라 창의적이어야 했다. 언어강의뿐만 아니라 동남아지역에 관한 특강과 동남아 영화상영회 같은 부대행사를 결합하는 기획안을 마련했다. 강연료를 줄 수 없어 재능기부형 특강을 부탁했고 서강대 동아연구소의 강희정 소장과 김종호 교수가 자비로 내려와 무료로 강연하였고, 채수홍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VIP진출기업현지화지원사업단은 엄은희, 이지혁, 육수현 박사의 무료 출장 강연뿐만 아니라 개회 만찬까지 제공해주었다. 대학 인근의 북카페 놀지 공동대표이기도 했던 베트남연구 인류학자 육수현 박사가 놀지에서 캠프 참여 ‘대학원생의 밤’을 개최하고 일부 특강과 영화 상영회를 자체 수주 사업비로 분담 개최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실현해주었다. 덕분에 부대행사가 매일 이어지는 캠프의 기획과 실현이 가

능했다(그림 2). 따라서 2019 동남아언어여름캠프는 전북대와 부산외대 특수외국어교육사업단만이 아니라 서강대 동아연구소, 서울대 VIP사업단, 책방 놀지가 조직적으로 함께 마련한 캠프였던 것이다.

<그림 2> 2019 동남아언어여름캠프 일정표

부산외대와 함께하는 전북대 동남아언어여름캠프 일정				
주최: 부산외대 특수외국어교육원, 전북대 사회과학대학(동아시아다문화연계전공) 공동주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서강대 동아연구소, 책방놀지, 전북국제교류센터,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JULY				
MON 15	TUE 16	WED 17	THU 18	FRI 19
9:30 - 12:00 언어강의				
12:00 - 13:00 점심				
13:00 - 14:00 개회식 (정보전산원 1층 시청각실)	13:00 - 15:30 언어강의			
14:00 - 15:30 특강1: 매공 (정보전산원 1층 시청각실)				
15:40 - 17:00 특강2: 이슬림 (정보전산원 1층 시청각실)	16:00 - 17:30 특강3: 호치민 (인문사회관 201호)	영화상영 토크 1: 베트남 의료봉사 (책방놀지)	영화상영 토크 2: 동티모르 (책방놀지)	영화상영 토크 3: 인도네시아 바틱 (책방놀지)
18:00-20:00 주최기관회의	대학원생 교류의 밤 (책방놀지)			
MON 22	TUE 23	WED 24	THU 25	FRI 26
9:30 - 12:00 언어강의				
12:00 - 13:00 점심				
13:00 - 15:30 언어강의				
16:00-17:30 특강4: 베트남의 남과 북 (인문사회관 201)	16:00-17:30 특강5: 해상실�크로드 (인문사회관 201)	16:00-17:30 특강6: 싱가포르의 탄생 (인문사회관 201)	16:00-17:30 특강7: 동남아 티투 (인문사회관 201)	15:40-16:30 수료식, 기념촬영 (인문사회관 201)

**■ 언어 분반별 강의실, 강사**

- 베트남어(초급 1반) | 사회과학대학 111호**  
\* 강사 | 구본석(동국대 경주캠퍼스 초빙교수)  
- 베트남사회과학원 석사, 박사, 동령대, 대구가톨릭대 강사
- 베트남어(초급 2반) | 사회과학대학 113호**  
\* 강사 | 이은정(동서대학교 강사)  
- 부산외국어대 학사, 석사(베트남어), 세종여당 강사, 각종 기업 강의
- 말레이인도네시아어(초급반) | 사회과학대학 219호**  
\* 강사 | 장상경(부산대학교 강사)  
- 한국외대 석사, 부산외대 박사과정,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
- 말레이인도네시아어(중급반) | 사회과학대학 105호**  
\* 강사 | 최신영(한국외국어대 강사)  
- EBS라디오 진행자, KBS 작가, 힘에서 특 인도네시아어 저자
- 태국어(초급반) | 사회과학대학 104호**  
\* 강사 | 김홍경(부산외국어대 교수)  
- 국립지원대학교 초빙교수, 한국동남아학회장, 한국태국학회장
- 미얀마어(초급반) | 사회과학대학 218-1호**  
\* 강사 | 김민지(국립성기포스트대 박사과정)  
- 부산외국어대 학사, 석사(미얀마), 한국동남아학회 총무강사
- 크메리어(초급반) | 사회과학대학 218-2호**  
\* 강사 | 정연정(부산외국어대 강사)  
- 캄보디아왕립미술원 박사(언어학), 여행 필수 캄보디아어 저자

**■ 개회식 7월 15일 13:00-14:00 수강생 전원 필수 참석**

13:00-13:20 등록  
13:20-13:30 경과보고 | 전체성(전북대 동아시아 다문화연계전공 주임교수)  
13:30-13:40 환영사 | 김홍경(전북대 총장)  
13:40-13:50 개회사 | 김홍경(부산외국어대 동남아총학생회장부 교수)  
13:50-14:00 발원사 및 기념촬영

**■ 동남아 지역 전문가 초청 특강**

- 매공: 전쟁에서 시장이 된 지역 | 영문학(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 이슬림: 동남아 아슬람 경제의 부상과 한국의 반응 | 이지역(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 호치민: 베트남의 역사와 호치민 | 육수원(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 지방: 베트남의 북부와 남부의 이해 | 백용훈(서강대 동양연구소)
- 바다: 해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 | 강희경(서강대 동양연구소)
- 다문화: 싱가포르, 석연도사에서 다문화 국민국가로 | 김홍효(서강대 동양연구소)
- 티투: 동남아의 문신문화 | 부경환(아시아문화원)

**■ 책방놀지 토크 | 영화상영**

- 베트남과 한국, 평화와 의료활동 | 이성우(아시아문화연구원)
- 동티모르, 문화와 종교 | 유민지(서울대 아시아연구소)
- 바틱으로 보다, 토크 | 이지혜(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 상영 영화 목록 및 시간: 인문학사랑 책방놀지 포스터 별도 안내 예정

**■ 수료식 7월 26일**

15:40-16:00 등록 및 강행가서 작성  
16:00-16:10 폐회사 | 백영수(부산외대 특수외국어교육원장)  
16:10-16:20 수료증 배부 및 분반별 기념촬영  
16:20-16:30 전체 수료생 기념촬영

낮선 행사인지라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했다. 전북대 내에서는 정치외교학과 교수 학생 전원, 동아시아·다문화융·복합연계전공 운영위원들과 전공생들, 사회과학대 교원 전체, 공대 글로벌 캠프톤디자인프로그램 운영 교수진과 참여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홍보를 부탁했다. 교내 전광판

에 정보를 게시하고 전북대신문에 기고도 했다.<sup>5)</sup>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다문화센터 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에 홍보를 부탁했고 언론사들에게 보도협조문도 내보냈다. UNSEASK 위원들에게 홍보를 부탁하며 포스터도 보내드렸다. 대학원생과 학자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한국동남아학회, 한국동남아연구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문화인류학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주요 국립대 교류처 등에 홍보 협조 요청 서한을 보냈다. 참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여 서울대 인류학과 BK+사업단과 교류협정(MoU)도 체결하였다.

〈표 2〉 2019 여름캠프 전북대 신청자 및 소속 단과대학(5월 22일 기준)

	학부생	대학원생	기타	합계
인문대학*	30	4	0	34
사회과학대학**	27	2	0	29
농업생명과학대학***	11	0	0	11
상과대학****	10	0	0	10
글로벌프론티어칼리지	7	0	1	8
공과대학*****	6	0	0	6
자연과학대학	3	0	0	3
생활과학대학	3	0	0	3
간호대학	1	0	0	1
수의과학대	1	0	0	1
환경생명자원대학	1	0	0	1
계	100	6	1	107

\* 인류, 영문, 프랑스아프리카, 철학, 스페인중남미, 독일, 문헌정보, 국문, 사학과.

\*\* 정치외교, 사회, 심리, 사회복지학과.

\*\*\* 생물환경과학, 산림환경과학, 농경제학과.

\*\*\*\* 무역, 경제학과.

\*\*\*\*\* 소프트웨어, 신소재, 고분자나노, 기계, 화학공학과.

수강생 모집은 구글폼 덕분에 간단한 접수창구를 온라인으로 개설하여 진행할 수 있었다. 추가에 추가를 거듭하여 거의 세 달 동안 홍보하고 모집한 결과, 수강신청자가 152명에 달했다. 전북대에서 107명이 신청하였고, 전국의 13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창원대, 조선대, 서강대, 경희대, 경상대, 전주대, 성공회대, 고려대, 한국외국어대, 이화여대, 목포대) 소속원들이 신청하여 당시 우리는 무척 고무되었었다. 대학원생 16명과 직무관련 전북도

5) 전북대신문. 2019. “우리 올 여름에는 동남아 말을 배우기로 해요.” 5월 10일.

민 6명도 신청하였다. 전북대 신청자들의 경우는 매우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수강을 희망하여 우리도 깜짝 놀랐고 동남아언어에 대한 학습 수요가 얼마나 넓은지를 실감하였다(표 2).

25명을 적정 수준으로 간주하였는데 베트남어는 신청자(60명)가 많아 두 개로 분반해야 했다. 인도네시아어 초급반(30명)뿐만 아니라 중급반(19명)도 개설할 만큼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5명 이상 개설 기준을 초과하여 미얀마어(11명)와 캄보디아어(크메르어, 9명)도 개설될 수 있었다. 부산외대 배양수 단장은 언어강사로 베트남어에 구본석(1반)과 이은정(2반), 인도네시아어에 장상경(초급반)과 최신영(중급반), 캄보디아어에 정연창, 미얀마어에 강민지, 태국어에 김홍구(첫주), Patcharapan Katakool(둘째주) 선생을 배정하였다. 물론 물리적인 준비도 필요했다. 강의실을 마련하고 반마다 표시물을 부착했고, 플랜카드도 건물 입구뿐만 아니라 반마다 걸었다. 외지 학생들이 각자 숙박을 잡도록 하였으나 곤란한 경우는 학교 게스트하우스 신청을 중개하겠다고 했는데, 다양한 선호를 지닌 학생들의 숙박을 조정하는 일이 무척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사진 3〉 2019 전북대 동남아언어여름캠프 출범식. 가운데 김동원 전북대 총장과 태국어 강사로 참여한 부산외대 김홍구 교수(현 총장)가 자리하였다.

드디어 개회의 날이 밝았다. 2주간 생활할 짐을 싸들고 전날 도착했던 강사들이 강의실에 일찍이 도착했으나 나타난 수강생들이 신청자 수보다 적었다. 당일 내려오는 이들이 지각을 하거

나 방학 중에 다른 계획이 생겨 수강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다. 김동원 총장이 개회식에 직접 참석하여 환영사를 말씀할 때 수강생은 93명으로 줄어있었다. 수강료나 참가보증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현상이었는데 주최측을 몹시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쓰라린 경험으로서 추후 대안 마련을 통해 시정되어야만 했다. 그래도 “전부 함께 동남아로 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캠프는 힘차고 즐겁게 출발했고(사진 3), 2주간의 첫 항해를 무사히 성료할 수 있었다. 여기서 “전부”는 전북대와 부산외대, 전주와 부산을 뜻하는 약자였지만, 말 그대로 동남아를 사랑하는 전국의 모든 이들을 뜻하기도 했다.

## ■ 캠프의 성과

### (1) 3년간 5회 개최

〈표 3〉 2019-2021 언어캠프 요약

시기	장소	언어반 개설 및 특강 내역
2019년 여름 (07.15.~26)	전북대	- 5개 언어 7개 반: 베트남어(2개), 태국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초급반, 인도네시아어 초급반 및 중급반
2019년 여름 (07.15.~26)	전북대	- 동남아 지역설명회 7회 - 동남아 영화상영회 3회 - 대학원생의 밤, 대학원진학설명회
2019년 겨울 (02.03.~14)	전북대	- 2개 언어 2개 반: 아랍어, 터키어 초급반
2020년 여름 (08.03.~14)	부산외국어대 (기숙사 제공)	- 5개 언어 8개 반: 베트남어, 마인어, 태국어 초급 및 중급반, 미얀마어, 아랍어 초급반 - 동남아 지역설명회 3회 - 대학원 진학설명회 2개 교육과정
2021년 여름 (07.12.~23)	전북대 (기숙사비 일부지원)	- 4개 언어 4개 반: 베트남어, 마인어, 태국어, 아랍어 초급반 - 동남아 지역설명회 5회 - 대학원 진학설명회 2개 교육과정
2021년 겨울 (12.27.~ 2022.01.07)	부산외국어대 (기숙사 제공, 1인1실)	- 5개 언어 7개 분반: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초급반 및 중급반, 태국어 중급반, 미얀마어, 아랍어 초급반. - 동남아 지역설명회 4회 - 대학원 진학설명회 2개 교육과정

우여곡절과 시행착오 속에 출범한 첫 캠프 이래 우리는 3년간 다섯 차례의 캠프를 전북대와 부산외대에서 성사시켰다. 첫 번째 캠프 이후 네 번의 캠프는 모두 코로나19 발발과 확산 상황

에서 개최되었다. 총 5회의 캠프를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굴하지 않고 모두 대면으로 개최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는 최고의 성과로 자평한다. 운영진에게 도전의 연속이었고 ‘눈물 없이 돌아보기 어렵다’는 3년간의 캠프 면모를 간추려 <표 3>에 정리하였다.

2019년 전북대 겨울캠프는 실험적이었다. 부산외대 특수외국어교육사업단이 담당하는 아랍어, 터키어, 인도어(힌디어) 3개 언어의 초급 강의만 개설하기로 계획하고 수강생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힌디어는 신청자가 없어 개설할 수 없었고, 아랍어와 터키어 교육만 진행하였다. 신청자가 없었던 힌디어와 2명만 수료한 터키어는 다시 개설하지 않고 신청자가 많았던 아랍어는 이후의 캠프에서도 동남아언어 강좌와 함께 계속 개설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처음 나온 2월 초에 개최되었기에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신청자들의 취소가 어느 때보다도 많았다.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방역지침은 그 이후 모든 캠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2020년 여름캠프는 국제보건기구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였고 정부 방역지침도 강화된 상태여서 대면 캠프 개최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했다. 전북대 측은 화상 강의로 개최하는 대안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배양수 단장은 ‘철저한 방역 속의 대면 캠프 개최’라는 결단을 내린다. 언어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대면 수업을 해야 한다는 소신에 근거한 것이다. 철저한 방역이 가능하도록 부산외대에서 특수외국어교육사업단이 직접 관리하는 캠프로 개최하고 수강생 전원을 기숙사에 투숙시키는 방식으로 캠프를 추진한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신청자가 줄었고 막판에 취소하는 신청자들도 꽤 있었지만, 전국 각지의 15개 대학 소속원 87명이 참여를 결행하였다. 다행히 단 한 명의 감염자도 없이 무사히 캠프를 완수할 수 있었다. 이때는 전년도에 초급을 배운 학생들을 위해 초급반뿐만 아니라 중급반도 동시에 개설하였다. 그래서 가장 많은 언어반이 운영되었던 캠프가 되었다. 그리고 기숙형으로 진행된 덕분에 캠프라는 명목에 잘 부합하는 캠프가 되었다. ‘음식의 고장’이라는 전주의 매력도 있지만 ‘낭만의 해변’을 접한 부산 역시 여름방학 중에 2주를 보내기에 매력적인 도시로 여겨졌던 것 같다. 산지에 자리한 부산외대의 입지도 수강생들에게, 특히 평지 대학을 다니는 전북대생들에게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한다.

2021년 여름캠프는 전북대에서 개최하고 초급반만 운영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의 강도가 더 심해져서 수강신청자가 역대 최저였다. 그러나 교육은 계속되어야 했다. 오전 수업 후에 모든 강의실을 소독해야 했기에 점심시간을 길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 학부생 운영자가 과로로 응급실에 가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지켜야 했고, 학생들의 협조 덕분에 감염

자 없이 무사히 캠프를 마칠 수 있었다. 캠프 기간 중에 전북대와 부산외대 총장이 상호 학점 인정에 관한 교류 협약을 체결하였다. 덕분에 차기 캠프부터 전북대 학생들이 부산외대 언어 과목을 ‘타대학학점교류’로 수강할 수 있게 되면서 비교과과정인 캠프가 교과과정까지 병행하게 되었다.

2021년 겨울캠프는 부산외대에서 개최되었다. 방역을 더 강화하기 위해 수강생 전원에게 기숙사 독방이 제공되었다. 이 캠프는 참여 측면에서 가장 다채로웠던 캠프로 기억된다. 전국의 17개 대학 소속원이 수강하였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졸업반 여고생들도 참여하였다.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 협조하여 이 캠프 역시 감염자 없이 마칠 수 있었다.

## (2) 301명의 수강생

3년간 다섯 차례 캠프를 통해 연인원 301명에게 아시아 언어를 가르치고 동남아 이해 교육을 제공한 것은 캠프의 명목에 가장 부합하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캠프 때마다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도 참여했다. 학생들이 다수였지만 연구원과 교수도 매회 참여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변호사, 기자나 다문화센터 직원 등 일반 시민들이 캠프 때마다 참여했다.

〈표 4〉 캠프별 언어반별 연도별 수강생

수준별	언어분반	2019 여름	2019 겨울	2020 여름	2021 여름	2021 겨울	계
초급	베트남어	35	-	34	13	8	90
	인도네시아어	21	-	14	16	18	69
	태국어	16	-	12	9	-	37
	미얀마어	6	-	6	-	3	15
	캄보디아어	6	-	-	-	-	6
	아랍어	-	9	7	9	11	36
	터키어	-	3	-	-	-	3
중급	인도네시아어	9	-	4	-	8	21
	베트남어	-	-	7	-	7	14
	태국어	-	-	3	-	7	10
합계		93	12	87	47	62	301

캠프별 수강생 분포를 〈표 4〉에 정리하였다. 첫 캠프 때 수강생이 가장 많았다. 열정적으로 홍보하고 가장 길게 모집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이었다는 시기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동남아언어가 개설되지 않았던 2019 겨울캠프를 예외로 간주하면, 한국에서

코로나19의 감염자 수의 증감과 이에 따른 정부의 방역정책 변화라는 외적 요인에 따라 캠프 참여자 수가 증감하였다. 개설한 언어 강좌 수에 따른 영향도 있어서 초급반만 개설되었던 2021 여름캠프 때 수강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수강생이 가장 많았던 언어는 베트남어로서 3년간 104명이 수강하였다.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어로 90명이 수강하였고, 세 번째는 태국어로 47명이 수강하였다. 이어서 아랍어(36명), 미얀마어(15명), 캄보디아어(6명), 터키어(3명) 순이었다. 캄보디아어와 터키어의 경우 신청자가 적어 한 회씩만 개설되었다. 동남아언어에 국한해 볼 때 수강생의 순위는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 무역 실적 순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한-아세안센터에서 발간한 2020년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무역 실적을 차지하는 국가는 베트남(46.5%)이며, 싱가포르(14.7%), 말레이시아(12.0%), 인도네시아(9.5%), 태국(8.3%) 순이었다. <표 4>에서 보이듯이 초급반뿐만 아니라 중급반까지 개설될 수 있었던 언어는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이다. 초급 최다 수강 언어는 베트남어였으나 중급 최다 수강 언어는 인도네시아어였다. 인도네시아어는 중급반이 세 번 개설될 수 있었지만 베트남어 중급반은 두 번만 개설될 수 있었다.

캠프를 거듭하면서 인도네시아어 신청자가 15명 이상이 유지되는데 반해 베트남어 신청자가 2021년 여름부터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점도 특이한 추세로 여겨진다. 인도네시아어의 경우 2019년 여름의 첫 캠프 때 많은 학생들이 신청했는데, 당시 전북대에 <인도네시아 언어와 정치>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었고 당시 강사(정정훈 박사)가 과목 수강생들에게 추가 학습을 독려했던 효과를 본 것 같다. 2021년 겨울캠프 때는 수강신청 기간에 전제성이 “인도네시아어의 20가지 미덕”이라는 주제로 맛보기 설명회를 수행한 이후 수강 신청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6)</sup> 배우기 쉽고 쓸모가 많다는 인도네시아어의 장점을 접하고 신청이 증가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을 받으며 조사했던 신청 동기는 <표 5>와 같다. 3년 평균으로 보면 가장 높은 신청 동기는 ‘다문화 소양 함양’이고 그 다음이 ‘국제 이해 증진’이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수강 동기 항목보다 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서 ‘취업 역량 강화’, ‘현지 파견’, ‘직무상 필요’, ‘학위논문 작성’, ‘대학원 진학’, ‘기타’ 순이었다. 동기를 하나만 선택하게 했던 2019년의 경우는 ‘다문화 소양 함양’ 동기가 ‘국제 이해 증진’ 동기를 큰 폭으로 앞섰으나, 복수선택을 가능케 한

6) “인도네시아어의 미덕: 2021 동계 동남아언어캠프 맛보기.” <https://youtu.be/Q2HFVptVQ6M>

2020년부터는 ‘국제 이해 증진’ 동기가 ‘다문화 소양 함양’ 동기를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상 필요’ 동기 비율이 2021년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학자나 활동가 같은 성인들의 참여 비중 증가에 비례한 결과로 해석된다.

〈표 5〉 수강 신청 동기(%)

항목	2019 여름	2019 겨울	2020 여름	2021 여름	2021 겨울	평균
다문화 소양 함양	28.3	40.5	55.4	40.4	48.9	42.70
국제 이해 증진	16.7	21.4	56.4	41.6	54.3	38.08
취업 역량 강화	16.7	16.7	32.7	23.6	37.2	25.38
현지 파견	20.0	14.3	22.8	18.0	21.3	19.28
직무상 필요	1.7	0.0	0.0	11.2	12.8	5.14
학위논문 작성	10.0	0.0	1.0	9.0	3.2	4.64
대학원 진학	1.60	0.0	0.0	3.4	0.0	1.00
기타*	5.0	7.1	4.0	5.6	6.4	5.62

주의 : 2020년 이후 항목 중복 선택 가능.

\* “선교”, “언어학습”, “관심”, “흥미” 등이라 직접 적은 경우들.

### (3) 32개 대학 학생들의 참여

캠프를 거듭할수록 참여 학생들의 소속 대학이 다양해지고 있다. 캠프마다 전북대생뿐만 아니라 타대학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3년 합계로 볼 때 전북대 소속 수강생은 전체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였다. 3년간 총 33개 대학 소속원들이 수강하였는데, 2021 겨울캠프가 참가자 소속이 17개 대학으로 가장 다양했던 캠프로 기록되었다. 첫 캠프 때는 UNSEASK 교원 소속 대학의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였으나 최근에는 그밖에 다른 대학의 수강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개최가 이어지면서 캠프가 더 널리 알려진 덕분일 것이다.

〈표 6〉은 대학별 수강생 수를 정리한 것이다. 전북대 수강생들에 이어서 서울대, 서강대 수강생 순으로 많았다.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언어캠프 참여 경비를 지원하는 대학의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교 학생들보다 더 많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6〉 참여 학교 별 수강생

참여자 소속 학교	2019 여름	2019 겨울	2020 여름	2021 여름	2021 겨울	합계
전북대*	60	9	33	36	10	148
서울대*	4	-	14	1	4	23
서강대*	3	-	5	1	7	16
연세대*	8	-	1	-	7	16
조선대*	2	-	10	-	-	12
성공회대*	1	-	-	1	5	7
한국외대	1	-	1	-	5	7
강원대*	-	-	3	-	2	5
경희대*	2	-	3	-	-	5
창원대*	3	-	2	-	-	5
고려대*	1	-	2	1	-	4
부산외대*	-	-	-	2	2	4
동국대	-	-	-	-	2	2
목포대*	1	-	1	-	-	2
부경대*	-	-	1	-	1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2	-	-	2
KDI국제정책대학원	-	-	-	-	1	1
경상대*	1	-	-	-	-	1
국민대	-	-	-	-	1	1
국방대*	-	-	-	1	-	1
부산가톨릭대	-	-	-	-	1	1
원광대	-	-	1	-	-	1
인천대	-	-	-	-	1	1
전남대*	-	-	-	-	1	1
전주대*	1	1	-	-	-	2
중앙대	-	-	-	-	1	1
충북대	-	-	-	1	-	1
한국방통대	-	-	-	-	1	1
호원대	-	-	1	-	-	1
University of Manchester	1	-	-	-	-	1
University of Massachusetts	1	-	-	-	-	1
전주솔내고등학교	-	-	-	-	6	6
일반인	3	2	7	3	4	19
합계	93	12	87	50	62	301
<b>참여대학 수</b>	15	2	15	9	17	32

\* UNSEASK 참여 교원 소속 대학.

전북대 학생들의 경우 국립대학육성사업을 통해 교통비나 장학금을 지원을 받았고, 서울대 인류학과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는 BK21+ 사업으로,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에임스(AIMS)사업의 일환으로 캠프 참여 자교 학생들의 여비와 숙박비를 지원하였다.

#### (4) 90%를 넘어서는 수료 비율

〈표 7〉 연도별 수료자 및 수료율

년도	2019 여름	2019 겨울	2020 여름	2021 여름	2021 겨울	합계/평균
수료자(명)	73	9	80	43	57	262
수료율(%)	78.5	72.2	92.0	91.5	91.9	85.22

캠프 수료 기준(80% 이상 출석)을 충족하여 수료증을 받은 수강생 비율이 캠프 2년차부터 90%를 넘어섰고 3년간 수료생이 262명에 달했다(표 7). 수료생은 캠프의 소중한 자산이자 자랑이다. 그래서 캠프 수료식마다 한 명씩 호명하여 수료증을 수여하고 반별로 기념 촬영을 한다. 우리는 첫 해의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 캠프 운영이 정교해진 결과 수료 비율이 증가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표 8〉 언어별 수료자 및 평균 수료율

년도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아랍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터키어
수료자(명)	94	72	43	32	13	6	2
수료율(%)	87.7	80.0	90.7	88.6	83.4	100	72.2

수료율이 가장 높았던 캠프는 2020년 여름, 그 다음이 2021년 겨울이었다. 이 두 캠프의 공통점은 장소가 부산외대였고, 기숙사를 부산외대에서 무료로 제공하여 ‘캠프’라는 명목에 맞게 진행되었던 캠프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초급반 수료율(87.6%)이 중급반(82.7%)보다 높았다. 언어별 수료율은 〈표 8〉에서 보이듯이 캄보디아어가 가장 높고 터키어가 가장 낮다. 그런데 이 두 언어는 한 회만 개설되었기에 여러 차례 개설된 언어들과 그대로 비교하긴 어렵다. 여러 번 개설된 언어 중에 수료율 평균이 가장 높은 언어는 90.7%를 차지한 태국어였고, 그 다음으로 아랍어(88.6%), 베트남어(87.7%), 미얀마어(83.4%) 순이었고, 동남아언어 가운데 가장 쉽다고 알려진 인도네시아어(80.1%)의 평균 수료율이 가장 낮게 나왔다.

수료생들의 도전이나 성취는 우리의 기쁨이다. 2019년 여름캠프 캄보디아어반 우춘희 수료생은 캄보디아 현지조사와 한국 농촌 현장연구를 거쳐 국내 이주 캄보디아 농업노동자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기록한 도서를 발간한 뒤에 잊지 않고 연구소로 책을 보내주어 우리를 무척 뿌듯하게 만들었다.<sup>7)</sup> 미얀마어를 수료한 성공회대 김연우 수료생도 메콩강 개발과 라오스 댐 이야기를 담은 공저를 발간하고 사진전까지 열었다는 소식에 또한 우리는 기뻐다.<sup>8)</sup> 태국어반을 수료한 서강대 대학원 동남아시아학협동과정의 송제 학생은 태국 사원 벽화에 관한 아주 희소한 석사 논문을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캠프가 개최될 때마다 자신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소식을 널리 공유해 주고 있어 고마웠다.<sup>9)</sup>

베트남어를 수료한 서울대 대학원 인류학과 김경민 학생도 코로나19에 길이 막혀 못나가던 현지조사를 드디어 떠난다는 소식, 인도네시아어 중급반을 수료하고 모든 부대행사에 참여하여 ‘강철의 수강생’ 상을 받은 전북대 김진오 인류학 박사수료생이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족자카르타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무사히 귀환했다는 소식, 미얀마어를 수료한 전북대 이우철 학생이 언어캠프 참여가 인연이 되어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전파진흥협회에 국제개발협력 담당자로 취업했다는 소식 등은 모두 우리가 기뻐하는 소식들이다.

## (5) 높은 만족도

부산외대가 조사한 캠프 수강생 만족도 조사에서 3년 평균이 5점 만점에 4.7로 집계되었고, 2021년의 캠프 만족도는 4.8을 넘어섰다. 캠프가 끝날 때마다 부산외대와 전북대는 수강생 만족도 자체조사를 각기 실시하여 언어캠프 개선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부산외대 측은 언어캠프 수료식 직전에 진행하며 2021년 하계까지 오프라인으로 조사하다가 2021년 동계부터는 온라인으로 수행하고 있다. 전북대의 경우 수료 이후 1주나 2주에 걸쳐 이메일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표 9>는 두 대학의 만족도 조사 문항들이다.

선택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으로 나누어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고, 선택형 질문은 양측이 각기 6개 항목이며, 개방형 질문은 전북대에서만 3가지 항목으로 조사하다가 2021년 여름부터 부산외대에서도 추가해서 받고 있다. 만족도 문항들을 비교하자면, 전북대 만족도 문항의 경우 언어강의에 집중하여 세부적으로 질문하는 반면에 부산외대의 경우 전반적 운영과 환경적 질문까지 포함

7) 우춘희. 『깃잎 투쟁기』. 서울: 교양인. 2022.

8) 김연우·송연재·정승은·이재원·강하니. 『강을 잃어버릴 우리에게』. 발전대안 피다. 2020.

9) 송제. “라마 3세 시기(1824-1851) 방콕 상좌부 불교사원의 博古圖 벽화에 관한 연구: 왕실사원 ‘왓 라차오롯’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하고 있다. 부산외대는 2021년 여름부터 만족도 조사 항목을 변경하였는데, 언어 수업에 관한 4개 질문과 다른 사람에게 강의를 추천할 의사, 다음번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이 추가 되었다.

〈표 9〉 수강생 만족도 자체조사 문항

전북대 만족도 조사 문항	부산외대 만족도 조사 문항
〈선택형 질문〉	〈선택형 질문〉
1. 언어 교육 수준과 방법	1. 프로그램 전반적 만족도
2. 교재의 적절성	2. 프로그램의 주제 및 내용
3. 강의 시간	3. 참가자 본인의 프로그램 적극성
4. 하루 강의 시간	4. 프로그램 시간
5. 본인 언어능력 신장	5.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정보
6. 다음번 강의 참여	6. 프로그램 장소 및 기타시설
〈개방형 질문〉	〈개방형 질문〉
- 불만족스러웠던 사항	- 강좌에서 좋았던 점
- 기대 이상으로 좋았던 점	- 개선방안
- 개선해야 될 사항	- 건의사항

연도별 수강생 만족도는 〈표 10〉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북대에서 진행한 만족도 조사의 평균은 5점 만점에 4.49점이고, 부산외대 자체 만족도 조사는 4.71점으로 나타났는데 동일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지만 평균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만족도 조사 방식, 만족도 조사 문항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0〉 연도별 수강생 만족도 평균

년도	2019 여름	2019 겨울	2020 여름	2021 여름	2021 겨울	평균
전북대	4.06	-	4.59	4.67	4.62	4.49
부산외대	4.38	4.77	4.69	4.92	4.80	4.71

부산외대 만족도 조사는 언어캠프 마지막 날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참여하여 응답도가 높은 반면에 전북대 만족도 조사의 경우 캠프가 끝나고 이메일로 응답을 받고 있어서 응답률이 부산외대보다 낮은 편이다. 연도별로 보면 첫 언어캠프였던 2019년 전북대 여름캠프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2021년 전북대 여름캠프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북대뿐만 아니라 부산외대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최근의 캠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캠프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표 11〉은 전북대에서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문항별로 보여준다. 세부 문항별로 보자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들이 있다. 6개 항목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하루 강의 시간’이었다. 총 강의시간과 마찬가지로 2019년 여름에 하루 강의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2021년 동계 강의를 그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2019년 하루 강의 시간은 5시간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루 강의 시간에 관한 척도 선택 문항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게 집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방형 서술 문항에서도 하루 강의 시간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러한 의견들을 고려하여 2020년에 하루 강의를 4시간으로 조정하였더니 하루 강의 시간이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2021년 동계에는 학점교류와 병행하면서 하루 강의시간이 다시 5시간으로 증가했는데, 만족도가 다시 떨어졌다.

〈표 11〉 전북대 측의 연도별 문항별 수강생 만족도 평균

항목	2019 여름	2020 여름	2021 여름	2021 겨울	평균
언어 교육 수준과 방법	4.20	4.60	4.79	4.83	4.61
교재의 적절성	4.44	4.64	4.32	4.44	4.46
총 강의시간	3.92	4.64	4.66	4.67	4.47
하루강의 시간	3.16	4.69	4.66	4.17	4.17
본인언어능력 신장	4.32	4.64	4.84	4.78	4.64
다음번 강의 참여	4.32	4.60	4.76	4.83	4.63

이와 연동된 것으로 ‘총 강의 시간’에 대한 평균만족도는 4.47점으로 나타났는데, 2019년 여름이 가장 낮았고 그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4.65점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강의시간의 경우 2019년 여름 캠프에서 50시간을 진행했는데 강사와 수강생들이 구두로 피력한 의견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20년 여름부터 40시간으로 조정하였다. 이후 2021년 동계 때에는 학점교류가 병행되어 45시간으로 다시 늘리게 되었다. 만족도 조사 결과로만 봤을 때 언어 강의 시간은 총 시간은 45시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언어 교육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본인언어능력 신장으로 연도별 평균이 4.64점으로 나타났다. 수강생 스스로 언어캠프를 통해 언어능력이 신장되었다고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이 4.63점으로 다음번 강의에 참

여하겠다는 항목이었다. 특히 이 항목의 경우 최근 캠프로 갈수록 긍정 척도가 높아지고 있다. 언어 교육 수준과 방법이 4.61점으로 나타났는데, 수강생들은 대체로 강사의 언어교육 수준과 방법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본인의 언어능력이 신장되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개방형 서술식 문항에서도 강사의 교수법이 좋았다거나 강의에서 보인 열정이 좋았다고 많이 언급되고 있는 점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

## ■ 캠프의 과제

### (1)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모집

캠프는 우리의 땀과 열정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국비가 투입된 사업이다. 3년간 부산외대 측에서 약 1억 4천만 원, 전북대 측에서 2천 6백만 원, 도합 1억 6천 5백만 원을 투입하였다. 가장 최근인 2021년 겨울캠프의 경우 7천 1백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참가자 1인당 약 1백 2십만 원의 교육비가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적지 않은 국비의 사용이 더 가치를 발하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수강생들이 모집되어야 할 것이다.

〈표 12〉 언어캠프 유입경로(%)

항목	2019 여름	2019 겨울	2020 여름	2021 여름	2021 겨울	평균
대학 사이트 공지사항	38.3	82.1	33.0	52.3	54.3	52.00
기관 및 교수 권유	36.7	12.8	25.0	30.7	20.2	25.08
SNS(페이스북 등)	5.0	0.0	11.0	10.2	16.0	8.44
지난 언어캠프 참여	0.0	5.1	7.0	6.8	9.6	7.13
지인 권유	3.3	0.0	5.0	0.0	12.8	4.22
오프라인 포스터	16.7	0.0	7.0	6.8	0.0	6.10
언론기사	0.0	0.0	0.0	2.3	0.0	0.46

적절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려면 캠프 수강생들의 정보 획득 경로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표 12〉는 수강신청자들이 언어캠프를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이다. 가장 많은 경우는 대학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통한 것이었다. 캠프 수강신청자의 50% 이상은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언어캠프가 개최된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답하였는데, 전북대 학생들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 해당

된다. 이런 점을 참고하여 주요 대학과 지역 대학 본부에 공문을 보내고 교내의 온라인 정보 회람 같은 홍보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부착된 포스터를 통해 캠프 정보를 보고 신청한 경우는 줄고 있는 반면에 SNS를 통해 개최 소식을 접하고 신청한 경우가 늘고 있다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온라인 공지를 더욱 강화하는 홍보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캠프의 주요 대상이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므로 페이스북 공지만이 아니라 청년층이 애용하는 매체에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조직과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홍보해야 할 것이다. 즉, 공급자 중심의 홍보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홍보가 펼쳐져야 한다.

두 번째로 많은 정보 접수 경로는 기관이나 교수의 권유였는데, 주로 UNSEASK 위원이 속한 대학의 학생들이 이에 해당되었다. 즉, UNSEASK 소속 교원들의 캠프 홍보와 권유가 캠프 참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에 있어서도 역시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 공감하고 움직여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더 많은 교원을 접촉하여 캠프 취지에 동의하는 UNSEASK 위원을 더 충원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홍보의 일환으로 동남아언어 ‘맛보기’와 캠프 설명회를 2021년 겨울캠프와 올해 여름캠프를 앞두고 줌 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바 있다. 2021년에 인도네시아어의 장점에 대한 강의를 통해 인도네시아어 수강생을 늘이는 효과를 보았다고 판단하여 올해도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 간 개최하고 캠프에서 개설되는 모든 언어에 대해 전문가들이 직접 20분간 소개하는 이른바 ‘언어 맛보기’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동남아 언어가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구사되는지 왜 배워야 하는지 알려주어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자 했고, 캠프 진행 계획을 소개하고 질문에 답하는 홍보의 시간도 가졌다. 그리고 각 언어 소개 강연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모집 기간 동안에 다시보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sup>10)</sup>

---

10) 동남아언어 맛보기 강연 내용은 아세안익스프레스에 지상 중계되었다. “부산외대 배양수-윤종태-이미지-윤용수 교수가 전북대 간 이유는?”(<http://www.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7759>), “전북대 언어캠프서 미얀마-캄보디아-인도네시아어 배워봐요.”(<http://www.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7760>)

## (2) 다문화 가정 자녀 포괄

이른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캠프에 포괄하고자 하는 노력은 2019년 출범 때부터 있어왔다. 한국 사람과 동남아 사람이 국제결혼으로 이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언어에 능통하게 된다면 자녀 개인의 진학과 진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동남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인재로서 나라의 인적 자산이 될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출신 이주민 자녀들이 아시아 지역연구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처럼 한국의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동남아연구 학문후속세대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남아언어를 학습하면 가정의 소통이 이중언어적으로 변하면서 가내 언어권력이 균형을 이루게 것이고, 외국어 능력이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인정받으며 자긍심을 갖게 되는 효과도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 특히 대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고교생의 참여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작년까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전라북도청 국제협력과 다문화지원팀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다문화 가정을 포괄할 가능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도를 모색하게 되었다. 우선, 전북대 동남아언어캠프 소식을 전라북도 산하 14개 시군의 국제담당 직원들과 다문화센터 책임자들에게 내려보내 홍보를 돕고, 참여의사가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덕분에 처음으로 부안에서 2명의 다문화 가정 고교생이 여름캠프에 수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기숙사 비용만 지원하고 식비 지원이 불가하자 수강을 포기하여 아쉽게 되었다.

언어캠프와 별도로 전동연이 부산외대와 전북도청을 중계하여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의 동남아언어 화상 수업을 개최하는 방안, 그리고 이중언어강사를 지망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게 언어교수능력 강화 교육을 제공할 계획을 논의 중에 있다. 초중고교생 대상의 동남아언어 화상 수업은 영남은 물론이고 전남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나 전북지역에서는 아직 수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효과적으로 시도하려면 전북교육청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도내에서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동남아출신자는 2022년 기준으로 베트남인 19명, 캄보디아인 6명, 필리핀인 4명, 태국인 1명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이들은 강사양성과정에서 언어학적 지식과 교수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추가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 (3) 언어 교육의 양적 질적 강화

언어캠프의 핵심은 언어교육이다. 그러므로 언어교육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강화할 방안이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 우선 강의 시간의 양적 증대가 현재로서는 아주 도전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 캠프는 2주 45시간의 언어교육으로 편성되어 있고, 수강생들이 여름과 겨울 캠프를 이어서 참여하면 도합 4주 90시간을 교육받을 수 있다. 미국의 동남아언어여름학교(SEASSI)<sup>11)</sup> 언어교육이 8주간 160시간인데 비하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언어 교육 시간을 늘릴 필요성이 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수강생들의 부담감을 극복해야 하므로 우리에게 아직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언어 교육의 질적 향상은 가능하고 항시 추구해야 한다. SEASSI는 교수법 강화에 가장 많은 노력을 투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캠프는 SEASSI와 달리 캠프 운영 기관과 강의 제공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캠프운영은 전북대가 책임지지만 교수법 강화는 부산외대의 몫이다. 물론 양 측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어떠한 의제도 개방적으로 논의하며 협력하고 있어서 이원화라는 제한 속에서도 캠프 교수법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 또한 가능할 것이다.

초급과 중급을 이어서 수강하는 캠프 수강생들이 중급 진입의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만족도 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중급반의 강의계획을 미리 공개하고 강의 초반에 초급 내용을 복습시키고 시험을 통해 수강생 실력을 파악하여 강의 수준을 조정하는 등 여러 방법이 고려될 수 있겠다. 초급과 중급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법과 함께 수강생의 노력을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고민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수료 인정 기준이 출석률뿐이었는데, 실력 향상을 향한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더 자극하려면 퀴즈나 시험을 수료 인정 기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동남아언어 실력의 등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시험제도가 발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존재하는 인정시험제도를 소개하고 응시를 권장하면 수강생들에게 더 많은 동기가 부여될 수 있겠고, 공인된 시험제도가 없다면 속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 (4) 화상 강의 병행 실험

동남아언어캠프에서 모든 동남아언어가 교육되고 있진 않다. 라오스어는 개설 계획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부 지정 중점언어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필리핀어(타갈로그어)는 개설 전망이 어두웠다. 필리핀어 개설을 장기적 과제로 두고 있던 차에 필리핀국립대학 한국학센터 배경민 선

11) SEASSI(Southeast Asian Studies Summer Institute) 홈페이지. <https://seassi.wisc.edu/>

생이 필리핀어 미개설의 아쉬움을 피력하며 강사 섭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해 주셨다.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유학한 언어학 전문 현지인 강사를 추천받았고 필리핀 전문연구 정치학자인 김동엽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장으로부터 강사로 지원도 약속받았다. 이로써 올해 여름캠프부터 처음으로 필리핀어 강좌 개설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강사가 필리핀 현지에 있고 수요를 가늠하기 어려워 줌 미팅을 통한 화상 강의로 개설하는 계획을 세웠다. 비대면 강의이고 시범적인지라 2주간 오전 2시간씩 20시간만 교육하기로 했다. 다행히 전국과 필리핀 현지에서 수강을 희망하는 14명의 신청자가 모집되어 강의를 개설될 수 있게 되었다. 비교적 신청자가 많았는데 이는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비대면 강의의 장점 덕분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번에 최소 인원 다섯 명이라는 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캄보디아어와 미얀마어 강의도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하는 대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 (5) 교류와 체험 기회 제공

만족도 조사에서 수강생 교류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는 수강생들의 건의가 접수되었다. 캠프 방식의 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중에 하나는 같은 공부를 하는 이들과 친교를 형성하는 것이다. 캠프는 동남아언어를 학습하려는 공통의 관심과 취향을 지닌 동년배들이 서로 반기고 격려하며 동행하는 친교가 맺어지는 장이어야 한다. 특히 동남아연구를 지망하는 대학원생들에게는 평생 이어지는 학술적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첫 캠프 때는 동남아 영화상영회나 ‘대학원생 교류의 밤’ 행사도 마련했던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에 직면하자 언어강의와 지역이해특강을 마스크 쓰고 서로 거리를 두면서 듣게 할 뿐 어떠한 문화행사나 친교의 장도 마련할 수 없었다.

영화상영회나 대학원생 교류 행사 외에도 여력이 된다면, 동남아출신 유학생이나 이주민들과 동남아언어캠프 수강생들이 교류할 기회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언어별로 하루씩 돌아가며 현지인들과 현지의 음식이나 차를 나누며 현지어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수강생들은 배운 말을 실제로 구사해보고 현지의 문화도 접하는 기회를 누리고, 동남아 유학생이나 이주민은 자기 언어를 애써 배우려는 희소한 한국인들과 친분을 쌓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 올 여름은 전주에서...

올해 동남아언어여름캠프는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전북대 전주캠퍼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그리고 새로 추가된 필리핀어를 포함하여 동남아 4개 언어 강좌가 개설되고, 기존의 아랍어 강좌에 더하여 부산외대 측에서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이탈리아어까지 개설되니 ‘동남아언어플러스캠프’라 불러야 마땅할 것 같다.

이번에 미얀마어와 캄보디아어 강의가 개설될 수 없어 무척 아쉽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가슴아파하는 미얀마의 언어나 우리 농업개발원조가 집중되어 많은 이들이 현지 마을까지 파견되는 캄보디아의 언어를 배우고자 캠프 참여를 신청하는 이가 전국에서 다섯 명에 달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래도 계속 시도해야 한다.

힘들고 비용이 들어도 캠프 형식으로 전국에서 수강생을 모아 교육하려는 이유는 이른바 ‘특수외국어’라는 것이 배우려는 이와 가르칠 수 있는 이가 다 희소하기 때문이다. 현재 확정된 수강생은 64명이다. 전북대를 포함하여 18개 대학의 학부생과 대학원생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전북도민이 수강할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소속원들이 참여하여 반갑고 기쁘다. 이렇게 우리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언어캠프는 전북대의 정부재정지원사업성과포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교육부의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포럼에서도 전북대의 대표사업으로 추천되었다. 성과 발표가 유튜브에 중계되기도 했고, 동영상 제작도 예정되어 있다.<sup>12)</sup> 언론 보도도 수십 건에 달한다. 전체성은 동남아 지역학 진흥을 위한 연계전공 창설 및 연구소 운영과 함께 특히 언어캠프 추진의 공적 덕분에 전북대 개교기념 포상(동행상)을 수여받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 캠프는 홀로 이룰 수 없는 것이었다. 부산외대의 김홍구 총장과 특수외국어사업단의 배양수 단장과 실무진, 열정적인 언어 강사들, 무료 특강을 해준 동남아연구자들, 전북대의 김동원 총장, 기획처 윤영상, 정용채 처장, 사회과학대 안국찬, 윤명숙 학장, 정치외교학과 교수진과 동아시아-다문화연계전공 운영위원들, 전국의 UNSEASK 참여 교원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관계자 등 실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지원해주셨다. 특히 배양수 단장의 헌신에 감사하고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

12) 동남아언어캠프의 국립대학육성사업 명칭은 ‘아시아특수언어캠프’이다.

요즘 많은 관심과 성원을 접하면서 우리는 이 캠프의 어떤 점이 이목을 끄는 것일까 되묻게 된다. 우리 캠프가 비좁고 이기적인 경계를 넘어 연대할 때 우리 모두가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영남과 호남의 대학이 울타리를 넘어 상이한 사업과 재원을 연계시키면서 동남아지역학 진흥과 후속세대 육성이라는 대의를 위해 연대하였다. 우리의 연대는 두 대학만을 위하지 않고 전국 모든 대학의 학생과 학자들과 동남아를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고등교육 혁신을 추구한다. 우리들의 구호처럼, “전부 함께 동남아로 가자!”고 외치면서.

〈Abstract〉

## Three Years of the SEASK: Achievements and Challenges

Dahye Kim, Hyun Kyoung Kim and Je Seong Jeon (JISEAS)

The SEASK (Southeast Asian School in Korea) co-organized b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nd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tarted in the summer of 2019 and was held five times over three years. The two-week vacation camp was conducted as face-to-face classes every tim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addition to five Southeast Asian languages (Vietnamese, Indonesian, Thai, Burmese and Khmer), Arabic and Turkish were also taught at the camp. About 300 students, including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from 32 universities from all over the country, as well as scholars, activists, lawyers, and journalists, took the course. Many people have shown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SEASK and are requesting a more detailed introduction. Now is the time to review the practices of the past three years. This paper is about the background, proces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SEASK. It was written by those who found the language camp together to celebrate the 3rd anniversary and prepare for the next 3 years.

Dahye Kim, Hyun Kyoung Kim and Je Seong Jeon. "Three Years of the SEASK: Achievements and Challenges." JISEAS Issue Paper No. 20 (30 June 2022).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Studies

전북대 동남아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을 수주하여 2019년 9월부터 전략적 지역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동연 이슈페이퍼도 그 일환으로 발행됩니다. 이슈페이퍼를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들은 연구소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자

#### 김다혜

전북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과 책무성(accountability)에 관한 주제로 학위논문을 작성 중이다.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객원연구원이자 일반사회교육과 시간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연구 성과로 『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공요인 분석』, 『한국 시민사회의 동남아시아연대운동』, 『코로나19에 맞서는 동남아시아』 등을 함께 저술한 바 있다.

#### 김현경

전북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인도네시아의 종교와 정치에 관한 주제로 학위논문을 작성 중이다.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연구 성과로 『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공요인 분석』, 『한국 시민사회의 동남아시아연대운동』, 『코로나19에 맞서는 동남아시아』 등을 함께 저술한 바 있다.

#### 전제성

서울대에서 민주주의 이행기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에 관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강대 동아연구소와 한국동남아연구소를 거쳐 현재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소장과 동아시아·다문화융합협력연구센터 주임교수를 겸하고 있다. 최근 연구 성과로 『한국의 동남아시아연구』, 『인도네시아 노동체제와 한국기업의 적응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공요인 분석』, 『한국 시민사회의 동남아시아연대운동』, 『코로나19에 맞서는 동남아시아』 등을 함께 저술한 바 있다.

### 발행일자

2022년 6월 30일

### 발행처

####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주소 : (54896)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제2후생관(건지원) 203호

홈페이지 : <https://jiseas.jbnu.ac.kr/>

이메일 : [jbnu.iseas@gmail.com](mailto:jbnu.iseas@gmail.com)

페이스북 : [facebook.com/ISEAS.JBNU](https://www.facebook.com/ISEAS.JBNU)

전화 : 063-219-5600 / 팩스 : 063-219-5602